

2017/18 중독 예방 캠페인 및 공모전

- 웹툰 부문 -

작품 제목

마지막 한 판

처음에는 부부동반으로
놀러 갔었지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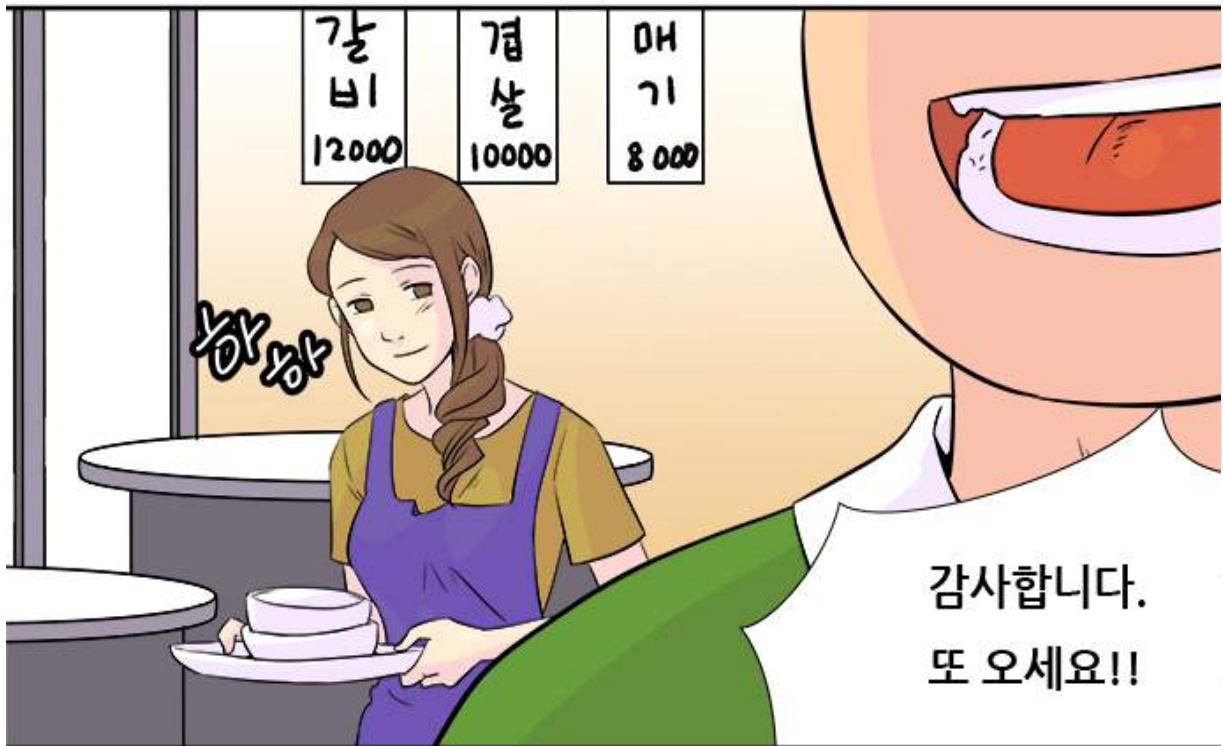
그런데 인생 한방이더라고.
대박이 난 거야!!!



바로 서울로 올라와서
고깃집을 크게 열었지.



장사는 꽤 잘 됐어.



감사합니다.
또 오세요!!

그런데 잘못된 유혹이
끝도 없이 커진 거야.



여기 있는 사람들..
하루 일용직으로 입에
풀칠하면서도



이 근처를 벗어나지
못 한다는 거야.

할머니는요?

할머니도 아직
미련이 남았나요?



나.. 나는

돌아가고 싶어도
갈 수가 없어.

쿨럭

가.. 가족들한테
너무 미안해서
갈 수가 없어.

쿨럭

쿨럭 쿨럭
쿨럭 쿨럭
쿨럭 쿨럭
쿨럭

쿨럭



쿵쿵

쿵쿵

그.. 그래도 죽기 전에
내 딸, 하영이를
보고 싶어.

쿵쿵

쿵쿵

쿵쿵

한 번만이라도.



할머니..
인터뷰 감사해요.
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
꼭 저녁 사드세요.



그리고 늦지 않았으니까
지금이라도 치료 원하시면
저희 복지센터로 찾아오세요.



이번 **한 판** 만 더 하고.

-END-